

○ 청풍호에 깃든 무릉의 정취 ○

용곡 지인호 선생의 한시 <청풍서경>

글 운호 이진호
한시·서예 용곡 지인호





충북 제천, 그중에서도 청풍호는 한 폭의 산수화처럼 고요하고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곳입니다. 물길 따라 바람은 선선하고, 산들은 봉우리를 맞대어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석양이 물들 무렵엔 하늘과 호수의 경계마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청풍호의 풍광을 진심으로 담아낸 이가 계십니다. 바로 한국서예협회 제천시지부장이신 용곡(龍谷) 지인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청풍의 풍광을 마주하며 서예와 시에 마음을 실어오셨고, 그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한시 한 편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청풍석경(靑風夕景), 즉 ‘청풍호의 저녁 풍경’입니다.

이 시는 先(먼저 선) 운목의 1, 2, 4구의 마지막 글자 天, 傳, 緣을 운으로 칠언절구 평기식 한시 형식입니다.

靑風夕景(청풍석경)

靑風湖水碧連天 (청풍호수벽련천)

청풍호의 푸른 물결이 하늘까지 이어지고

玉筍峯光畫阻傳 (옥순봉광서조전)

옥순봉의 풍광은 그림으로 표현할 길이 없구나

過客乘船觀晚照 (과객승선관만조)

지나가는 나그네, 배에 올라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心知此地武陵緣 (심지차지무릉연)

문득 깨닫노니, 이곳이야말로 무릉도원과 인연이 닿은 곳이로다

이 한시는 그저 풍경을 묘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요?

“靑風湖水碧連天”

첫 구절부터 시인의 시선은 청풍호 전체를 휘감습니다. 맑은 바람과 푸른 호수, 그 색이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마치 이승의 풍경이 아닌 듯한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이곳을 실제로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물빛이 하늘빛과 하나 되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분간할 수 없던 순간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玉筍峯光畫阻傳”

다음 구절은 제천의 명산, 옥순봉(玉筍峯)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석양이 봉우리에 비치며 수목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그 아름다움은 붓과 먹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화조전(畵阻傳)’이란 표현은 그런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過客乘船觀晚照”

세 번째 구절은 청풍호를 찾은 나그네의 시선을 통해, 한적한 저녁 무렵 배를 타고 바라보는 노을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과객’이라 표현했지만,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자연의 감동 앞에서 일시적으로 멈춰 선 인간의 내면이 느껴집니다.

“心知此地武陵緣”

마지막 구절은 깊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곳이 도연명의 <무릉도원>과도 같은 인연이 있는 장소라는 깨달음입니다. ‘무릉연(武陵緣)’은 이곳 청풍호가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세속을 벗어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야말로 동양 고전시가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선생님의 이 한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용곡 선생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연 속에서 심상을 길어 올리고, 붓끝에 담아내시는 분입니다. 특히 서예와 한시라는 두 전통 예술을 아울러 창작해 내는 드문 예술가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서예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시와 결합하여 감성과 사유를 한데 엮는 특별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청풍석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안겨주며, 제천이 가진 자연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향기도 함께 전달해 줍니다.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청풍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내면의 무릉이 되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사진을 찍기에 바쁘고, 눈으로만 풍경을 소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한시처럼,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붓 대신 눈과 마음으로 시를 써 내려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천 청풍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 질 무렵 옥순봉에 노을이 물들면, 이 시 한 구절이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心知此地武陵緣” — 이곳은 분명 무릉도원과 이어진 인연의 자리입니다.

제천 청풍호

제천 청풍호는 충주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 호수로, 면적 67.5km²에 달하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불리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통해 비봉산 정상에서 호수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유람선을 타고 옥순봉, 구담봉, 금수산 등의 명소를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청풍호는 자연과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지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제천 청풍호 전경

옥순봉

옥순봉(玉筍峯)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위치한 기암괴석의 명승지로,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하며 제천 10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름처럼 옥처럼 희고 대나무 순처럼 솟은 바위 봉우리들이 절경을 이룬다. 퇴계 이황이 이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그 뒤로 단양 대신 제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옥순봉 전경 / 출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특히,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단원)는 1796년 「병진년화첩(丙辰年畵帖)」의 첫 장에 옥순봉을 그린 「옥순봉도」를 남겼다. 이 작품은 청풍호를 품은 산세와 수직으로 치솟는 절벽을 유려한 필선으로 묘사하여, 옥순봉의 신비롭고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아낸 수묵화의 백미로 평가된다. 오늘날 옥순봉은 출렁다리, 유람선 관광, 청풍문화재단지 등과 연계되어 사계절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글 윤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한시·서예 옹곡 지인호(龍谷 池仁昊)

- 한국서예협회 제천시지부장
- 충북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서예예술대전 초대작가
- 동방대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 문인화 교육 강사 1급